

『몽골비사』의 세계

유 원 수(서울대학교 HK연구교수)

I. 책의 내용과 형식
II. 『몽골비사』의 신화의 세계
1. 하늘이 점지한 잿빛 푸른 이리와 흰 암사슴
2. 도와 외눈, 도본 명궁, 알란 미인
3. 보돈차르 바보의 미스터리
III. 『몽골비사』의 문학 세계: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 몇 가지
1. 이수게이의 후엘룬 납치
2. 아버지 이수게이의 죽음: 시련의 시작
3. 이복 형제 백테르: 테무진의 첫 살인
참고문헌

I. 책의 내용과 형식

『몽골비사』는 칭기스 칸의 일대기이다. 또한 그의 선조인 부르테 치노(잿빛 푸른 이리)와 코아이 마랄(흰 암사슴) 내외부터 칭기스 칸 자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25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때로는 비교적 상세하게 때로는 아주 간략하게, 때로는 신화나 문학처럼 표현되고, 때로는 역사처럼 기록된 한 집안의 내력이다.

『몽골비사』는 또한 그들과 25대에 걸쳐 함께 살던 몽골 고원 유목민들의 삶에 대한 역사 기록이고 민속학, 언어학, 문학의 자료이며, 12세기 중엽부터 13세기 초까지 금, 송, 고려, 원, 서하, 고려를 비롯한 크고 작은, 그리고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몽골을 겪은 역사이다.

『몽골비사』는 풍부한 내용의 신빙성 높은 역사 자료로서, 『元史』, 『集史』, 『聖武親征錄』, 그리고 400년 쯤 후대에 편찬된 것이긴 하지만 *Altan tobči* 등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우리가 역사적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의 존재와 가치가 팔라디(Паллади, 1866)를 통해 중국 외부로 처음 알려진 이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뛰어난 연구들이 줄을 잇게 되었다. 그 한 예로 몽골의 연구자 잔치브(Жанчив, 2006:112-126)의 글에 제시된 『몽골비사』의 번역물만 20여개 언어 99종에 달할 정도이다.¹⁾

그 결과 『몽골비사』의 내용과 여러 관련 사항은 그 대부분이 이미 상세하게 파악되었고, 20세기 후반부터는 문헌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전사되었다. 한국에서도 유원수(1994)의 번역이 나왔고, 10년 뒤에는 유원수(2004)로 번역과 함께 전사를 제시하였으며, 다시 2년 후에는 『몽골비사』의 전사와 번역을 포함하는 박원길들(2006)의 연구가 나오기도 하였다.

책의 몽골어 이름은 *Mongyol-un ni'uča tobča'an*(몽골의 비밀스러운 사략)이다. 원전은 13세기 중에²⁾ 칭기스 칸의 가문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위구르 몽골문자 같은 소

1) 한자로 음역된 중세몽골어에서 다른 언어(할하 몽골어나 칼미크어 등 몽골어계 현대 방언 포함)로 전문 번역한 것, 일부분만 번역한 것, 한어 총역(總譯)을 번역한 것, 한 사람이 2번 번역한 것까지 망라하였다.

2) 『몽골비사』를 자신들의 고유 문화유산이라고 여기는 몽골과 중국에서는, 성서 연대에 대한 다양

리글자로 기록되었을 것이며, 칭기스 칸의 후예들로 한정된 독자를 상정하고 편찬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리고 그 소리글자 본이 몽골어와 한어에 두루 능통한 사람(들)에 의해, 14세기 중에, 그 당시 한어 북방 방언의 한자음(漢字音)에 기대 한자로 음역(音譯)되었으리라고 짐작한다.

소리글자 원본은 전하지 않고, 한자음역본(漢字音譯本)의 사본들을 18~19세기에 서사(書寫)한 것들이 남아 있다. 연구자들이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은 그 서사본들을 20세기에 들어와 인쇄, 영인하여 출판한 것들인데, 12권 본, 15권 본 같은 용어로 분류되기도 한다. 12권 본 가운데 하나인 사부총간본(四部叢刊本)은 서사 혹은 각자(刻字) 상의 오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되어 연구자들은 대체로 1936년에 상해상무인서관(上海商務印書館)에서 영인 출판된 사부총간본을 저본으로 삼고, 1908년에 목판 인쇄된 엽덕휘본(葉德輝本)과 15권 본인 영락대전본(永樂大典本)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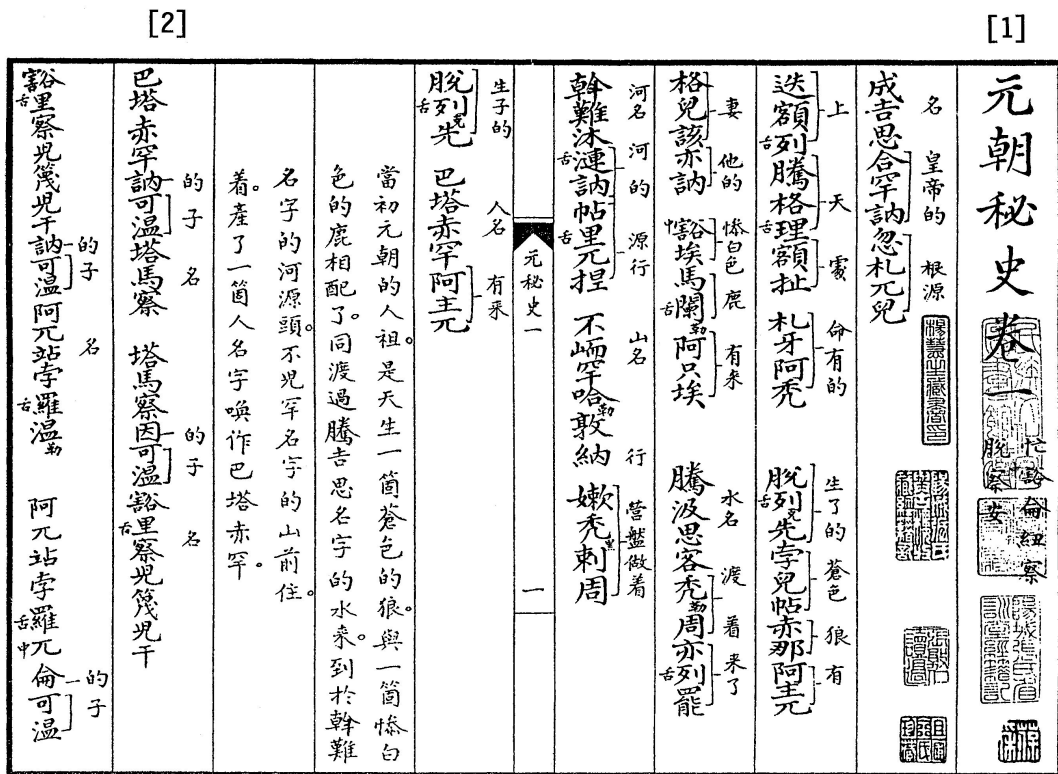


그림 1. 몽골비사의 시작 부분. 일본 토후쿠대학 쿠리바야시 히토시 교수 제공.

『몽골비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4 부분으로 혹은 작게 10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형식에 따라 12권 282절 혹은 15권 282절로 나눌 수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 혹은 관점에 따라 더욱 세분하거나 달리 나눌 수도 있겠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 분류를 통해 이 책이 기본적으로 신화와 문학과 역사가 한데 섞인 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으로, 일단 1240년을 성서 연대로 삼아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번 강의를 통해 신화와 문학의 세계를 대표하는 몇몇 이야기들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림 2. 『몽골비사』의 내용과 성격

분류	해당 절	내용, 특기 사항	기본 성격
1	1절-58절	1. 칭기스 칸의 조상들: (1) 신화적 존재인 부르테 치노 ~ 알란 미인 내외 (1절-16절) (2) 육친적 조상인 보둔차르 바보 ~ 부친 예수게이 용사 (17절-58절) - 신행길에 납치되어 온 어머니 후엘룬 부인	신화와 문학적 허구와 역사적 사실의 혼효
2	59절-268절	2. 칭기스 칸의 일생: (3) 테무진의 출생 ~ 부친의 피살 (59-68) - 부르테와의 정혼 - 독살되는 아버지 (4) 청소년기의 불행과 고난 (69-103) - 친족들의 따돌림 - 형제 살해 - 타이치오드에서의 포로 생활과 탈출 - 아내 부르테의 피납 (5) 점증하는 위기의 극복과 몽골 고원의 통일 (104-201) - 옹칸, 자모카와의 연대 - 동몽골의 강자로 부상하는 테무진 - 옹칸, 자모카와의 결별 - 메르키드, 타타르, 케레이드, 나이만 등 경쟁 세력 분쇄 (6) 칭기스 칸으로 추대됨, 몽골 국권의 확립 (202-246) (7) 세계 정복자 칭기스 칸 (247-264) - 여진의 금, 중앙아시아의 콰레즘, 서하 원정 (8) 영웅의 승천 (265-268)	문학적 허구에서 역사적 사실로의 이행
3	269절-281절	3. 칭기스 칸의 계승자: (9) 제국의 발전: - 대칸의 지위를 계승한 3남 우구데이의 업적과 과오 - 후예들 간의 반목	역사적 사실
4	282절	4. 刊記: (10) 『몽골비사』 쓰기를 마친 시기와 장소	역사적 사실

II. 『몽골비사』의 신화의 세계

웨이들(Wei et al, 1998), 헤르츠펠트(Herzfeld, 1916), 베르나드스키들(Vernadsky et al, 1953), 비라(Бира, 1990)들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하늘이 점지한 잿빛 푸른 이리와 흰 암사슴

칭기스 카한의 선조는 위에 계신 하늘에서 운명을 받아 태어난 잿빛 푸른 이리였다. 그의 아내는 흰 암사슴이었다. 텡기스를 건너왔다. 오난강의 발원인 보르칸 칼돈에 터를 잡으면서 태어난 것이 바타치칸이었다. (1절)

(1) 건국의 영웅 또는 나라의 조상

하늘의 섭리로 이 땅에 내려왔다 > 너희들의 지배자는 하늘의 섭리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 나라를 세워 그 주인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모두 하늘이 미리 정해 놓은 일로 사람이 함부로 거스를 수 없다.

(2) 우리 건국 신화와의 비교

1) 건국영웅

- ① 단군: 환인(桓因=帝釋天)의 손자, 환웅(桓雄)의 아들
- ② 주몽(朱蒙): 천제(天帝)의 손자, 해모수(解慕漱)의 아들
- ③ 칭기스 칸: 하늘이 내린 존재의 23대 손
- ④ 튀르크계 민족의 선조: 사람과 암이리

2) 남녀 조상의 관계

- ① 환웅과 웅녀(熊女): 시혜~수혜, 지배~피지배 관계.
- ② 잿빛 푸른 이리와 흰 암사슴: 이리 토렘 집단과 사슴 토렘 집단의 결합을 암시.
- ③ 사람과 암이리: 암이리가 제 젖을 먹여 키운 사람과 부부가 되어 튀르크계 민족들의 남자 조상들을 낳음.

3) 큰 물을 건너움.

- ① 『몽골비사』의 “텡기스를 건너왔다”: 위험, 추종자에 대한 암시 없이 아내인 흰 암사슴과.
- ② 주몽이 “엄리대수(奄利大水)를 건넜다.”: 긴박한 위험을 피해 부하~추종자인 오이, 마리, 협보와.

2. 도와 외눈, 도본 명궁, 알란 미인

도와 외눈은 이마 가운데 외눈을 하고 있었다. 그 외눈으로 유목 이동하는데 사흘 걸리는 거리를 내다 볼 수 있었다. (4장)

하루는 도와 외눈이 아우 도본 명궁과 함께 보르칸 칼돈에 올랐다. 도와 외눈이 보르칸 칼돈 위에서 내려다보니 통겔릭 개울을 따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동해 오고 있었다. (5장)

도와 외눈이, “저 이동해 오는 사람들 가운데 검은 수레의 앞자리에 있는 아가씨가 매우 아름답다. 미혼이면 도본 명궁 너를 위해 청혼하자!”며 아우 도본 명궁을 보냈다. (6장)

도본 명궁이 그 사람들에게 가보니 실로 아름답고 멋진 이름난 알란 미인이라는 이름의 처녀였

다. (7장)

그 사람들은 전에 쿨 바르고진 분지의 주인 바르고다이 명궁의 딸 바르고진 미인을 코리 투마드 족의 지도자 코틸라르타이 명궁에게 주었는데, 코리 투마드의 땅 아릭 오손에서 코틸라르타이 명궁과 아내 바르고진 미인 사이에 태어난 딸이 알란 미인이라는 이름의 그녀이다. (8장)

- ① 이마 한 가운데 있는 하나뿐인 눈: 외형적 장애 > 유목 이동하는데 사흘 걸리는 먼 거리를 내다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 > 하늘이 낸 범상치 않은 존재.
- ② 알란 미인과의 결혼: 토착 사냥꾼 집단인 몽골과 외래 사냥꾼 집단인 코리 투마드 집단의 결합.

3. 보돈차르 바보의 미스터리

(1) 보돈차르의 출생

알란 미인은 도본 명궁에게로 와서 두 아들을 낳았다. 부구누테이, 벨구누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다. (10장)

그러다가 도본 명궁이 죽었다. 도본 명궁이 죽은 뒤에 알란 미인은 남편도 없이 세 아들을 낳았다. (17장)

사슴 카타기, 황소 살지, 보돈차르 바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다. 먼저 도본 명궁에게서 태어난 아들 벨구누테이와 부구누테이는 자기들의 어머니 알란 미인이 없는데서, “우리 어머니는 형제도 친척도 없고, 남편도 없이 이 세 아들을 낳았다. 집안에는 단지 마알릭 바야우드 사람이 있다. 이 세 아들은 그의 것이다.”라며 수군거렸다. (18장)

(2) 화살 꺾기

어느 봄날, 말려 저장해 두었던 양을 삶고 벨구누테이, 부구누테이, 사슴 카타기, 황소 살지, 보돈차르 바보 이들 다섯 아들을 나란히 앉히고는 화살 한 대씩을 꺾어 보라고 주었다. 한 대씩은 지체 없이 꺾어 버렸다. 다음에는 다섯 대의 화살 묶음을 꺾어 보라고 주었다. 다섯 모두가 다섯 대 묶음의 화살을 꺾으려고 차례차례 시도해 보았으나 아무도 꺾을 수 없었다.(19장)

다시 알란 미인이 다섯 아들에게 타이르기를, “너희들 나의 다섯 아들은 한배에서 나왔다. 너희들이 하나하나가 되면 저 한 대씩의 화살들처럼 누구에게도 쉽게 꺾인다. 너희들이 저 묶음 화살들처럼 함께 한 마음이 되면 누구에게든 쉽게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그렇게 지내다 그들의 어머니 알란 미인도 죽었다. (22장)

- ① 이솝(BC 620-560) 우화: 아버지이고, 아들들에게 먼저 나뭇단을 묶음으로 꺾어보게 하고 나중에 낱개로 꺾게 함.
- ② 플루타크(AD 46-120) 영웅전: 스키타이의 임금 스킨루르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 놓고 투창 꺾기를 시킨 뒤 화합을 당부.
- ③ 몽골 설화가 이솝우화를 비롯한 비슷한 다른 이야기들의 후세형일 가능성.

(3) 보돈차르의 잉태

그러자 어머니 알란 미인이 말했다. “너희들 벨구누테이와 부구누테이, 내 아들들아! 내가 이 세

아들을 낳았다. [너희는] 누구의, 어떤 아들들인가 하고 의심하여 숙덕댄다. 너희들이 의심하는 것도 옳다. (20장)

밤마다 밝은 노란색 사람이 천창이나 문의 위 틈새로 빛을 따라 들어와 내 배를 문지르면, 그의 빛이 내 배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달이 지고 해가 뜰 새벽 무렵에 나갈 때는 누렁개처럼 기어나가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왜 함부로 말하는가?

그렇게 알면

그 상징은

하늘의 아들들!

너희들은 왜 검은머리의 인간들과

견주어 말하는가?

모든 자들의 임금이 되면

평범한 인간들은 그제야 깨닫게 되리라!”고 했다. (21장)

- ① 알란 미인의 수태는 유화부인의 주몽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수태, 알렉산더 대왕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연상케 함.
- ② 몽골이 고구려와 인접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고구려 건국 설화의 영향일 수도 있음.
- ③ 칭기스 칸의 조상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격을 지닌 존재, 적어도 하늘과 사람의 중간적 존재임을 강조.

(4) 바보 보돈차르

어머니 알란 미인이 죽은 뒤 형제 다섯이 가축과 식량을 나누는데 벨구누테이, 부구누테이, 사슴 카타기, 황소 살지 넷이 서로 나누어 가졌다. 보돈차르는 “어리석고 약하다.”고 형제로 치질 앓고 몹을 주지 않았다. (23장)

보돈차르는, ‘형제로도 안 쳐주는데 여기 있으면 무엇 하나?’ 해서 등마루에는 안장에 끌린 상처가 있고, 꼬리는 몽푹하며, 검은 색 등에 푸르스름한 빛을 띤 흰색 말을 타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면서 오난 강을 따라 내려가 버렸다. 발준 섬에 이르러 거기다 풀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24장)

- ① 어머니가 남편 사후 밤에 왔다가 새벽에 가는 정체불명의 노란색 사람에게서 잉태한 혼인 밖 출생자이고, 같은 노란색 사람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에게조차 따돌림 당한 어리석고 약한 바보부터가 칭기스 칸의 육친의 조상.
- ② 잿빛 푸른 이리와 흰 암사슴 내외로부터 도본 명궁에 이르는 11대까지는 칭기스 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 ③ 원래의 이야기는 칭기스 칸의 선조라고 하는 잿빛 푸른 이리와 흰 암사슴을 조상으로 하는 이야기였으나 『몽골비사』를 저술할 무렵 그 효력이 많이 약화되자 알란 미인이 빛에 감응되어 보돈차르 바보를 비롯한 삼형제를 낳는 신비한 이야기로 강화된 것일 가능성.
- ④ 그리고, 빛에 감응하여 삼형제를 낳는다는 후세에 덧붙여진 이야기는 고대 몽골 고원의 주민들이자 마니교의 신도들이었던 위구르 사람들을 통해 들어온 마니교의 영향일 가능성.
- ⑤ 보돈차르의 삼형제가 혼인 밖에서 출생하였다는 것, 보돈차르가 바보이며 약했다는 것을 명기한 『몽골비사』의 태도는 혼인 밖 출생자,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약한 사람, 따돌림 받는 사람을 고대~중세 몽골인들이 하늘과 교통하는, 하늘과 무언가 끈이 닿는, 하늘의 보호

를 받는, 특별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시사.

III. 『몽골비사』의 문학 세계: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 몇 가지

1. 이수게이의 후엘룬 납치

보돈차르 바보에서 다시 11대, 잿빛 푸른 이리와 흰 암사슴 내외로부터 22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칭기스 칸의 아버지 이수게이 용사와 후엘룬 부인이다. 두 사람은 물론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몽골비사』를 따르자면, 후엘룬은 이수게이가 형제들의 힘을 빌려 남의 신행을 습격, 약취(略取)한 여자다.

그때, 이수게이 용사는 오난강에서 매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메르키드족의 큰 칠레두가 울코노오드 사람들한테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을 만나게 되어 엿보니 미모가 빼어난 귀부인이었다. 자기 집으로 달려가 형 네쿰 태자와 동생 다리타이 막내를 데려왔다. (54장)

그들이 다가오자 칠레두는 겁이 나서 타고 있던 발빠른 호박색 말의 뒷다리를 때려 언덕을 넘어 달아나고 그 뒤를 쫓아서 쫓았다. 칠레두가 산굽이를 돌아 자기의 수레로 다시 오자 후엘룬 부인은, “저들이 누군지 아세요? 인상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당신의 목숨을 해칠 얼굴들이에요! 당신은 살아만 있으면,

수레의 앞방마다 처녀들이
수레의 검은 방마다 귀부인들이 있어요.

당신은 살아만 있으면, 숙녀와 귀부인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여자를 얻어 후엘룬이라고 이름지어요! 우선 목숨을 돌보도록 해요! 내 냄새를 맡으며 가요!”라고 말하며 저고리를 벗어 주자 칠레두가 마상에서 더듬어 집으려 할 때 세 사람이 산굽이를 돌아 다가오니 칠레두는 발 빠른 호박색 말의 뒷다리를 때려 급히 달려 오난강을 따라 상류 쪽으로 달아났다. (55장)

셋이서 뒤에서 일곱 개의 언덕을 넘을 때까지 쫓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후엘룬 부인이 탄 수레의 말고삐를 이수게이가 끌고, 형 네쿰 태자가 선도하고, 동생 다리타이 막내가 수레 옆에서 붙어 나아갈 때 후엘룬 우진이 탄식하기를, “내 신랑 칠레두는

바람을 거슬러 머리를 흔들린 적도 없고
거친 들에서 배를 주린 적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두 갈래 머리채를
한번은 등뒤로, 한번은 가슴 앞으로 날리며
한번은 앞으로, 한번은 뒤로하며 가는가?”라고 하고 나서

오난강이 물결치도록,
숲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울어대자 다리타이 막내가 옆에서 나란히 가면서,

“당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고개를 여럿 넘었다.
당신이 울어주는 사람은 물을 여럿 건넜다.
외쳐도 당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찾아도 당신은 그가 간 길을 찾지 못한다.
이제 그만 좀 해 두시오!”

하고 달렸다. 후엘룬 우진을 이수게이는 이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56장)

이 사건은 1162년의 칭기스 칸의 탄생, 20여 년 뒤 칭기스 칸의 부인 부르테를 메르키드 부가 보복 납치하는 것, 부르테가 억류 생활에서 돌아와 조치를 낳은 것, 조치와 그 후손들이 그 뒤에 태어난 차아다이, 우구데이 및 그들의 후손들에게 끈질기게 모욕, 배척당하는 것 등 『몽골비사』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곡절과 사연의 큰 부분, 그리고 - 『몽골비사』의 저자는 꿈에서도 생각지 못하였을 - 그 모욕과 배척이 불러들인 몽골 세계 제국의 붕괴로까지 이어진다.

만일에 초원의 분위기가 『몽골비사』가 전하는 대로였다면, 신랑인 메르키드의 큰 칠레두는 신부인 울코노오드 부의 후엘룬과 폭력과 약취와 강탈이 난무하는 초원을 단둘이 여행한 것이 된다. 마치 습격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래서 『몽골비사』라는 대하소설의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름답고 현명한 젊은 여인 후엘룬은, 훗날의 칭기스 칸의 어머니답게,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다른 여자를 얻어 후엘룬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우선 목숨을 돌보라고, 침착하고 간절하게 그에게 피신을 설득하면서, 자기 냄새를 맡으며 가라며 저고리를 벗어 줌으로써 중세 몽골인들을 한번 충분히 감동시킨다. 그리고는 그가 위험에서 충분히 벗어난 것을 확인하자 목 놓아 울면서 마치 미리 준비된 듯한 애절한 노래를 불러 다시 한 번 감동시킨다. 형들과 함께 남의 신행을 습격하고 신부나 납치하는 무지막지한 다리타이 막내의 입에서도 정교하게 두운이 압운하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당시의 몽골 문학의 수준이 반영된 문학 작품인 것이다.

2. 아버지 이수게이의 죽음: 시련의 시작

많은 영웅 서사 문학에서 영웅은 원래부터 영웅으로 태어난다. 영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웅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술한 시련을 영웅적 용기와 지혜로 극복하게 되어 있다. 영웅은 거듭되는 시련의 극복을 통하여 자신이 영웅임을 보여주고, 영웅의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영웅이 영웅임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영웅 서사 문학의 주인공이 범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테무진도 영웅인 이상 범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시련은 아홉 살 나던 해에 아버지 이수게이 용사가 독살을 당하면서부터 밀려들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죽음은 외로움, 가난, 위험을 의미했다. 곧 보게 될 형제살해도, 사실이라면, 아버지의 부재가 불러온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비사』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아버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독이 든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독이 든 음식을 먹게 된 것은 여행 중 목이 말라 타타르 사람들의 잔치 자리에 들렀는데, 그 가운데 이수게이를 알아본 자들이 음식에 독을 섞었기 때문이다. 타타르 사람들이 독을 섞은 것은 예전에 약탈당한 일을 상기하고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행을 한 것은 아홉 살 난 테무진을 장가들이기 위한 것이었고, 독이 든 음식을 먹고도 사흘 밤낮을 가서야 겨우 집에 도착할 정도로 멀리 갔던 것은 처음에는

어머니 후엘룬의 친정인 올코노오드 사람들한테서 테무진의 색시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수게이 용사는 테무진이 아홉 살이 되자 후엘룬 어머니의 친정인 올코노오드 사람들에게서, 즉 테무진의 외가에서, 테무진의 색시를 구하고자 테무진을 데리고 떠났다. 도중에 책체르와 치쿠르쿠 사이에서 옹기라드 사람 데이 현자를 만났다. (61장)

데이 현자가, “이수게이 사돈,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고 묻자 “내 아들의 외가인 올코노오드 사람들에게서 며느리를 구하고자 왔습니다.”고 했다. 데이 세첸이, “당신의 아들은

눈에 불이 있고,
얼굴에 빛이 있는 아이입니다. (62장)

“이수게이 사돈! 제가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흰 송골매가 해와 달을 움켜쥐고 날아와 내 손에 앉았습니다...(중략) (63장)

우리의 아들들은 목영지를 돌보고,
우리의 딸들은 아름다운 얼굴을 보입니다.

이수게이 사돈, 우리 집에 갑시다. 내 딸은 어렵니다. 사돈에게 보이겠습니다!”라고 하며 데이 현자가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65장)

훗날의 테무진, 즉 대칸 칭기스 카한의 아내, 대칸 우구테이와 조치, 차아다이, 툴루이의 의 어머니, 대칸 구육, 대칸 몽케, 대칸 쿠빌라이, 그리고 킵착의 칸 바투, 일칸 훌레구 등의 할머니가 될 부르테인지라 여느 아이들과는 겉모습도, 풍겨나는 분위기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딸을 보니

얼굴에는 빛이 있고,
눈에는 불이 있었다.

딸이 마음에 들었다. 테무진 보다 한 살 많은 열 살이었다. 부르테라는 이름이었다...(중략)...그렇게 되어 이수게이 용사가 “내 아들을 사위로 맡기겠습니다. 내 아들은 개한테 잘 놀랍니다. 사돈, 내 아들이 개한테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고 당부하고 자신의 예비마를 예물로 주고, 테무진을 사위로 맡기고 돌아왔다. (66장)

이수게이 용사는 도중에 책체르의 시라 케에르에서 타타르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마주쳐서 목이 말라 그들이 잔치하는데서 말을 내렸다. 그 타타르들은 그를 알고 있었다. “이수게이 키안이 온다.”면서 예전에 약탈당한 일을 상기하고, 원수를 갚고자, 몰래 독을 섞어 주었다. 도중에 점점 상태가 나빠져 사흘 밤낮을 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서는 몹시 위독해졌다. (67장)

이수게이 용사가, “속이 나빠진다. 가까이 누가 있느냐?”고 물어 “콩코탄 사람 차라카 노인의 아들 몽릭이 가까이 있다.”고 하자 불러오게 하여 이르기를, “애, 몽릭아! 나는 애들이 어리다. 내 아들 테무진을 남의 사위로 주어 맡겨 놓고 오다가 도중에 타타르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했다. 내 속이 나빠진다. 어린 채 남겨진 네 조카들을, 네 과부 형수를 보살피 주기 바란다. 내 아들 테무진을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애 몽릭아!” 하고 나서 세상을 떠났다. (68장)

그 험악하던 시절, 자기가 약탈하던 사람들의 잔치 자리로 혼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자리로, 혼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몽골비사』의 기록자가 자세히 이야기하기 싫거나 귀찮은 무슨 일이 따로 있었든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어려워도 중세의 몽골인들에게는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했든지 일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몽골비사』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아버지가 죽자 가족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들이닥친다. 그중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친척들에게 철저히 따돌림 받는 것이었다.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의 황량한 몽골 초원에서 아버지 없는 가정을 유목 이동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것은 전통 시대의 한국 마을에서 손도맞는 것보다 더 가혹한 일이었을 수 있다. 믿기 어려운 것은 아버지의 친형제들, 친조카들도 이들을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모자들을 현재의 목영지에 버리고 이동할 것이다. 당신들도 데리고 가지 마라!”고 하여 다음 날부터 똥똥이 키티톡, 투두엔 기르테 등의 타이치오드들은 오난강을 따라 내려갔다. 후엘룬 부인을, 모자들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자 콩코탄의 차라카 노인이 가서 말렸으나, 투두엔 기르테는

“깊은 물이 말랐다.
흰 돌이 부서졌다.³⁾”며 떠났다.

차라카 노인을, 당신이 왜 말리냐며, 창으로 뒤에서 등줄기를 내리질렀다. (72장)

다음으로 어려운 것은 가난이었다. 『몽골비사』는 유목민인 이들이 초근목피와 물고기로 연명하는 가난을, 55장에서 이미 범상치 않은 면모를 충분히 드러낸 어머니 후엘룬의 영웅의 어머니다움을, 그리고 역경에 굴하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주는 자녀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운문으로 묘사했다.

타이치오드 형제들이 후엘룬 부인을, 자식들이 어린 과부들을, 목영지에 버리고 떠나게 되자 여장부로 태어난 후엘룬 부인이 어린 아들들을 기르는데, 모자를 단단히 눌러 쓰고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오난강을 위 아래로 뛰어 다니며 산이스랏, 머루를 따서 낮으로 밤으로 허기를 달랬다.

담력을 갖고 태어난 부인 어머니가
복 받은 아들들을 기를 때
잇개나무 막대기를 잡고
원추리, 수리취를 캐서 먹었다.
부인 어머니가 자충이, 달래로 키운 아들들은
임금이 될 만큼 자랐다.
원칙 있는 어머니가
산나리로 기른 아들들은
절도 있는 현자들이 되었다. (74장)
아름다운 부인이
부추, 달래로 키운

3)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의 중세 몽골어 정형 표현.

철부지 아이들이
 험험장부들이 되었다.
 사나이 호남아들로 다 자라서
 사내답고 자긍심 있게 되었다.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자!”고 의논하고
 어머니 같은 오난강의 둑 위에 앉아
 낚싯대와 바늘을 갖춰
 각종 고기를 낚아 올리고
 바늘을 구부려 낚시 바늘 삼아
 구을무지, 사루기를 낚으며
 그물을 엮어 작은 고기를 건져 올려
 자신들의 어머니를 봉양했다. (75장)

3. 이복 형제 백테르: 테무진의 첫 살인

그런데 씩씩하고 반듯하게 잘 자랐다고 방금 전에 칭찬 받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일을 저지른다. 테무진과 그 친동생인 카사르가 이복 형제 백테르를 죽여 버린 것이다. 『몽골비사』는 살해의 동기를 아버지 없이 궁핍하게 살아가던 이복형제간의 불화가 폭발한 것으로 묘사하고, 형제 살해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죽은 백테르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는 투다.

하루는 테무진, 카사르, 백테르, 벨구테이가 함께 앉아 낚시를 하고 있는데 빛나는 물고기가 한 마리 걸려들었다. 그 고기를 백테르와 벨구테이가 테무진과 카사르에게서 빼앗았다. 테무진과 카사르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우리가 낚은 물고기를 백테르, 벨구테이 형제가 빼앗았습니다.”라고 하자 어머니가 타이르기를, “그만들 두거라! 너희들은 형제간에 왜들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그림자 말고는 동무도 없고
 꼬리 말고는 채찍도 없다.

타이치오드 형제들과의 한은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왜 옛날 알란 어머니의 우애 없는 다섯 아들 같이 굴고들 있느냐? 그러지들 마라!”고 했다. (76장)

그러자 테무진과 카사르가 안 좋아하며, “어제도 고도리살로 잡은 작은 새를 그렇게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또 그렇게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하고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렸다. 백테르가 둔덕 위에서 거세 샤프가말 아홉 마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때, 테무진은 뒤에서, 카사르는 앞에서, 살을 시위에 매긴 채 몰래 접근하는 것을 백테르가 보고, “타이치오드 형제들과의 한을 풀지 못한 판에, 누구를 해코지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눈에 빠진 속눈썹, 입에 든 가시로만 여기느냐?

그림자밖에는 다른 동무가 없고,
 꼬리밖에는 다른 채찍도 없을 때

너희들은 왜 그렇게들 생각하느냐? 나의 가계를 단절시키지 말아다오! 벨구테이는 죽이지 말아다오!”라고 말하고 나서 다리를 틀고 앉아 기다렸다. 테무진과 카사르는 앞, 뒤에서 접근하여 쏘고 가버렸다. (77장)

자신의 어린 아들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들의 이복형제를 살인한 것을 알았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만큼 참담한 것도 이 세상에는 드물 것이다. 그러한 어머니의 그러한 참담한 심정을 『몽골비사』는 다음과 같이 시를 닮은 말로 표현한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두 아들의 안색을 보고 알아차리고 이르기를, “제 형제를 죽인 놈들,

내 뜨거운 곳에서 힘차게 나올 때
이놈이 제 손에 검은 핏덩어리를 쥐고 태어났다.
제 모태를 물어뜯는 카사르 개처럼,
바위에서 덩벼드는 표범처럼,
제 분을 누르지 못하는 사자처럼,
산사람을 삼키려드는 망고스처럼,
제 그림자에 덩벼드는 송골매처럼,
소리 없이 삼키는 꼬치고기처럼,
제 새끼의 종아리를 물어뜯는 수 낙타처럼,
눈보라 속에서 밀려드는 이리처럼,
제 새끼를 쫓아내다 못해 잡아먹는 원앙새처럼,
소굴을 건드리면 떼지어 덩벼드는 승냥이처럼,
잡아서 길들일 수 없는 호랑이처럼,
이유 없이 덩벼드는 바록 개처럼
제 형제를 죽였다.
그림자밖에는 다른 동무가 없고,
꼬리밖에는 다른 채찍도 없을 때

타이치오드 형제들과의 한을 풀지 못하고, 원수를 누가 갚겠느냐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살자고 네놈들이 이 따위 짓을 했느냐, 네놈들이?”라며 자신의 아들들을

옛 이야기를 새기게 하며,
조상들의 말씀을 인용해 가며

몹시 꾸짖었다. (78장)

물론 자신의 어린 아들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들의 이복형제를 죽여 버린 것을 알았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참담한 것도 이루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어린 아들이 이복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한 어머니의 심정과 비교할 바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몽골비사』는 가해자 어머니의 탄식만 늘어놓을 뿐 피해자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해 버리는 불공평한 태도를 취한다. 『몽골비사』는 벡테르, 벨구테이 형제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존재조차도 부정하고 싶은 저자 혹은 저자들이 쓴 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어머니는 훨씬 뒤에 잠깐 언급될 뿐이고, 작품 내내 이름은 한 번도 불리어지지 않는다. 사실 테무진에게 이복형제 벡테르와 벨구테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이제 서야 나온 것이다. 『몽골비사』 전편을 통하여 벡테르가 언급되는 곳은 여기뿐이다. 게다가 『몽골비사』에 묘사되는 테무진과 벨구테이의 평생의 관계로 보아 벡테르가 과연 실존 인물이고, 그가 벨구테이의 친형이고, 또 테무진과 카사르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살인을, 다른 사람도 아닌 건국 영웅이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일이다.

참고 문헌

- 김호동(역주), 라시드 앓 딘(지음)(2003), 『칭기스 칸 기』, 서울: 사계절.
- 박원길, 김기선, 최형원(2006), 『몽골비사의 종합적 연구』, 서울: 민속원.
- 유원수(1994), 『몽골비사』, 서울: 도서출판 해안.
- 유원수(2004), 『몽골비사』, 서울: 도서출판 사계절.
- 유원수(2009), 「몽골비사 解題」, 중앙유라시아연구소 2009년도 문명 아카이브 해제 프로젝트. (<http://cces.snu.ac.kr/com/08mgbs.pdf>)
- 최기호, 남상궁, 박원길(1997), 『몽골비사 역주(I)』, 서울: 두술.
- 巴雅尔(2006), 「關於《蒙古秘史》的作者和譯者」 『天驕偉業』, 602-611, 郝時遠, 羅賢佑, 烏蘭(編),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方齡貴(2006), 「關於《元朝秘史》書名問題支再檢討」 『天驕偉業』, 627-637, 郝時遠, 羅賢佑, 烏蘭(編),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小林高四郎(1954), 『元朝秘史の研究』,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 小澤重男(1984-1986), 『元朝秘史全釋』(上), (中), (下), 東京: 風間書房.
- 小澤重男(1987-1989), 『元朝秘史全釋續攷』(上), (中), (下), 東京: 風間書房.
- 栗林均, 确精扎布(2001), 『『元朝秘史』モンゴル語全單語・語尾索引』, 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叢書第4号, 仙台: 東北大學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 村上正二(1970), 『モンゴル秘史 1 - チンギス・カン物語』, 東洋文庫 163, 平凡社, 東京.
- Blo-bzang bstan-'jin(1990), *Erten-ü qad-un ündüslegsен törü yosun-u jökiyal-i tobc ilan quriyaysan altan tobc'i kemekü orusibai*(gerel jiruy), Ulaıanbayatur: Ulus-un Keblel-ün yaıar.
- Wei, Cuyi & Kael W. Luckert(1998), *Uighur Stories from Along the Silk Road*, University Press.
- Herzfeld, Ernst(1916), "Alonga", *Der Islam* 6, 317-327.
- Pelliot, Paul, Hambis, Louis(traduit et annoté)(1951), *Histoire des campagnes de Gengis khan: Cheng-wou ts'in-tcheng lou*, Tome 1, Leiden: E. J. Brill.
- Rachewiltz, Igor de(2004),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 Mongolian Epic Chronicle of the Thirteenth Century 1*, Leiden·Boston: Brill.
- Rachewiltz, Igor de(2004),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 Mongolian Epic Chronicle of the Thirteenth Century 2*, Leiden·Boston: Brill.
- Vernadsky, George and Michael Karpovich(1953), *The Mongols and Russia III*,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Бира, Ш.(1990), "Нууц товчоо бол монголын түүх ба бичигийн соёлын агуу их дурсгал мөн", *Bulletin: the IAMS News information on Mongol Studies* 2(6), 7-19.
- Жанчив, Ё.(2006),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н-ыг орчуулж хэвлэсэн байдлын жагсаалт",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зохиолын гадаад орчуулга*, Ц. Сараанцацрал(Эрхлэн эмхэтгэсэн), 112-126,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Сургууль,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Сургууль, Дипломат Орчуулгын Тэнхим(2006), Улаанбаатар: Бемби Сан ХХК.
- Палладий, Кафаров(1866), "Старинное монгольское сказание о Чингис-хане," *Труды*

членов Российской духовной миссии в Пекине т. IV, 3–258, СПб.